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홍 나 미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며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모학대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보다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괴롭힘은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에 순차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청소년 자살생각, 대인관계내재화, 절망감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많은 변화들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지난 몇 십 년동안 청소년의 자살은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방 자살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2010)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15-24세 인구의 사망 원인의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였다.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가 2008년 13.5명에서 2009년에는 15.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고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자살로 인해 사회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자살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일어난 청소년자살은 보고된 자료보다 훨씬 더 높을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것으로 추정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범위는 자살시도와 자살생각까지 고려할 때 더욱 커진다.

자살생각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과 다른 속성을 지니지만 논리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과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살행위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경험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Cohen, Spirito and Brown, 1996; Lewinsohn, Rohde, and Seeley, 1996). 이처럼,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자살행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자살행위에 대한 발전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의 요인과 자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은 스트레스에 대한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위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상호작용 능력이 미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부모와 또래친구는 청소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체계인데, 부모로부터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또래친구로부터 낙인찍혀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 느낄 때, 청소년들은 친구는 있지만 혼자이며, 부모는 있지만 이야기 상대로서의 부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

특히, 부모의 학대와 또래괴롭힘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부모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1)에 의하면 2010년도 학대피해사례는 5,657건으로 학대피해아동의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친밀한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성 때문에(이상준, 2006),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럽고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3배로 높았으며(Perkins and Jones, 2004), 자살생각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Berenson et al., 2001).

또래로부터의 낮은 친밀감과 높은 거절감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심각한 자살생각을 가졌는데(Kerr, Preuss, and King, 2006), 또래괴롭힘은 무력한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원으로 자살생각을 의미있게 예측하는 요인이었다(최준영, 2007; Peter, Roberts, and Buzdugan, 20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2011)에서는 신체폭행, 금품 갈취 등 드러나는 폭력이 41.9%, 집단따돌림이나 인터넷 폭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56.5%로 나타나 또래괴롭힘 현상이 청소년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래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은 불안과 외로움, 낮은 자기효능감, 학업적 어려움, 학교결석을 포함하는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되어있을 뿐 아니라, 우울과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았다(Hanish and Guerra, 2002).

이처럼, 부모의 학대와 또래괴롭힘은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

거나 또래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청소년들 모두가 자살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레스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요인이 작용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학대경험과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확인하거나(김혜성, 2008; 최준영, 2007),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지 못한 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과의 관계로만 설명하여,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내적 요인과 학대 및 또래괴롭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틀을 구성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제시되었으나(김은경·이정숙, 2008; 김재엽·이근영, 2010; Salzinger, Rosario, Feldman, and Ng-Mak, 2007), 학대 및 또래괴롭힘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을 주로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으로만 제시하여 병리적 모델에 갇히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외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과 신체생리학적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인지과정을 간과하므로 자살의 기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과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경험을 왜곡되게 지각하거나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희수·이재토·홍성훈, 2006; Sabbath, 1969; Woznica and Shapiro, 1990),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사고가 심각한 자들은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이 높다는 사실(Joiner, Pettit, et al, 2002; Stewart et al., 2005; Van Orden et al, 2006; Van Orden et al., 2010)에 주목하였다. 자살행위는 고립되고 적대적인 세상에 직면하는 고통으로 불리울 만큼 대인관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Shneidman, 1996), 자살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촉발사건 자체가 자살을 유발하기보다는 촉발사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적 결핍이나 내적 영향력의 정도가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기환·전명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으로 안정된 경험이 부족하였던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왜곡된 대인관계 인식을 변화시킴으로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론에 기반을 둔 변인들을 활용하여 자살위험을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과 즉각적인 개입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생각

청소년 시기에 자살에 대한 생각, 동기 및 유혹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며 보편적 문제이며, 후기청소년과 초기성인기(15세-24세)에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문제이다(Evans, Hawton,

and Rodhan, 2005).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의 조사에서는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8.8%이고, 자살시도의 경험은 11.2%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2009)가 2009년 중·고교생 9,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기청소년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중 23.6%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10.3%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자살생각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새롭게 출현하는 '사례'로 보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Kerr, Owen, Pears, and Capaldi, 2008). 사춘기 이전의 청소년의 경우, 자살행동에 앞서 대략 10번 이상의 자살생각을 하며(Pfeffer, 1989), 자살을 생각했던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시작한 첫 해 안에 자살계획과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orges, Benjet et al., 2008).

Kessler, Borges, and Walters(1999)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계획을 세우며, 시도가 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었음을 밝히면서,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1년 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자살시도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and Fitzmaurice (2006)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했던 집단이 하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를 12배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시도집단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하게 낮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성인기의 자살생각과 시도를 예측하므로,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학대 및 또래괴롭힘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학대와 방임으로 드러나며, 최악의 부모-자녀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경험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낮은 자기효능감, 절망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자기규제 발달의 저해 등이 포함되며(Taft, Schumm, Panuzio, et al., 2008),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성격장애, 정신증적 증상, 약물남용과 폭력등과 같은 외현화 행동 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과도 관련이 있다(Dick, 2005). 무엇보다, 학대경험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는 자기파괴적인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박경, 2005; Joiner et al., 2007).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Grilo et al.(1999)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Perkins와 Jones(2004)의 연구에도 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위험이 각각 31.5%와 10.0%로 나타나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시도가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정윤경·이진석(2009)은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에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안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또래로부터 거부된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며, 스트레스

사건을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찾지 못하여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킨다(Parker and Asher, 1987).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할 경우, 심리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할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 증가, 자존감저하와 외로움, 통제감 상실, 자신의 취약감과 불안, 억제행동, 학교에 대한 거부감과 등교거부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94). 이처럼 또래괴롭힘은 우울이나 불안 등 내현화 문제뿐 아니라 분노와 또 다른 가해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자살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원중, 2004). Smith(2010)은 청소년기의 자살이 지속적인 또래괴롭힘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안전하지 않은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를 무너뜨리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3) 대인관계내재화 및 절망감과 자살생각의 관계

대인관계 내재화는 Joiner(2005)의 자살이론인 대인관계-심리이론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되어 제시되었다. 그는 자살이 좌절된 심리적 욕구 즉 심리적 고통에 의해 일어난다는 Shneidman(1996)의 이론과 자살에 대한 인지적 관점인 절망을 강조하는 Beck, et al(1979)의 이론을 기반으로 죽음의 소망을 설명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인관계 내재화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관계의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를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통합되지 못하여 소외되었고,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짐이된다고 왜곡되게 지각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결핍감, 정신적 고통으로써 이러한 심리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다(Joiner, 2005).

대인관계내재화 변인은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이 조합된 개념으로, 각 하위개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밝혀졌다(Maris et al., 2000; Joiner, Pettit et al., 2002). 소속감 결여는 좌절된 또는 왜곡된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된 심리통이며(Shneidman, 1996; Baumeister and Leary, 1995), 짐이되는 느낌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는 유능감이라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지각하여 타인에게 짐이된다는 두려움을 의미한다(Joiner, 2005). 소속감 결여를 느끼는 뇌의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뇌의 영역과 동일한 만큼,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소외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통증이며 지속적인 자살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Feldman and Eliot, 1990; Trout, 1980). 짐이되는 느낌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인으로(Joiner, Pettit, et al., 2002), 짐이되는 느낌을 진술한 자들에게서 자살위험이 의미있게 상승되어 나타났다(Motto and Bostrom, 1990).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은 Joiner, Van Orden, Witte and Rudd(2009)에 의해 대인관계내재화 척도로 구성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내재화를 단일변인으로 보고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살행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변인 중 하나는 절망감이다. 절망감은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감,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개인적 실패에 대

한 지각,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과 불행을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인 절망감은 자살행동에 가장 빈번히 연관되는 증상이다.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서 절망감은 자살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왔다(Ellis and Rutherford, 2008; Pettit and Joiner, 2006).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절망감이 증가하며, 절망감은 문화권과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다(Stewart et al., 2005). 한편, 청소년 자살행동에 대한 절망감의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Brent, Kolko, et al., 1990; Rotheran-Borus and Trautman, 1990), 그 이유는 절망감척도가 일관되지 않거나(Brent et al., 1990),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으로 설명되었다(Cole, 1989; Digdon et al., 1985).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예측변인으로서 절망감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절망감은 스트레스 사건과 자살생각,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며, 자살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등(김현순, 2008; Goldston et al., 2001) 자살생각에 대한 중요한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4) 부모학대, 또래괴롭힘과 대인관계내재화 및 절망감의 관계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 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학대와 또래괴롭힘 경험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과정에는 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안정된 관계경험의 부족으로 환경과 자신을 더욱 왜곡되게 지각하거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있다. 부모의 학대와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며, 그 고통을 활성화시켜 대인적 선택으로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Tse and Bagley, 2002; Yip et al., 2006).

대인관계내재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oiner(2005)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므로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조사된 연구는 없지만, 대인관계내재화를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인지정서요인으로 정의할 때, 학대 및 또래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부모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수치감과 자기비하감을 갖게 되어 스스로에 대한 통합적 존중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김은경·이정숙, 2008),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지각하였는데(Sabbath, 1969), 가족 안에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지각했던 청소년들은 결국 자살생각과 많은 관련성이 있었다(Woznica and Shapiro, 1990).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적게 하였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으며(최지영, 2008),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 불안, 외로움과 함께 자기비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and Juvonen, 2002). 즉,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비난하며, 높은 대인 불안을 보이면서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여 왜곡된 지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희수·이재토·홍성훈, 2006; Campell and Morrison, 2007).

부모학대, 또래괴롭힘은 절망감과도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 가족응집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였으며(Meseese, Yuyrzenka, and Vitale,

1992),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역기능적 가족의 청소년들은 절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 Kwok and Shek, 2010a).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들은 절망감을 느끼며(Sweater and Doll, 2001), 따돌림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따돌림경험을 보고한 아동의 절망감 수준이 높았다(Coggan, Bennett, Hooper, and Dickinson, 2003).

5)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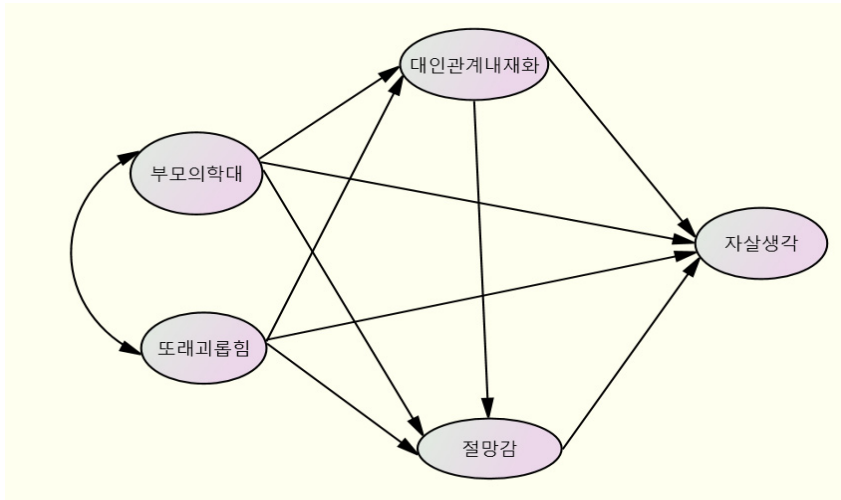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대인관계내재화는 우울이나 절망감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신과 환자, 대학생, 일반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절망감과 우울의 영향력을 통제된 이후에도 대인관계내재화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상태에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Van Orden, Lynam, Hollar and Joiner, 2006; Van Orden et al., 2008; Joiner et al., 2009). 완결된 자살자와 자살시도자가 남긴 유서를 비교분석한 연구(Joiner, Petti, et al., 2002)에서 절망감이나 정서적 고통, 감정통제 등의 차원에서는 자살완결자와 자살시도자의 차이가 없었으나, 타인에게 짐이 되었다고 지각한 대인관계내재화는 자살완결자에게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을 인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내재화는 만성적 우울이나 주요우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iner, Van Orden et al., 2009). 이처럼 대인관계내재화는 우울이나 절망감과 관련이 있지만 상호 독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치명적 자살의 인과경로를 제안한 Van Orden et al.(2010)은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중요한 경로로 포함시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소속감이 결여되고 짐이되는 느낌을 내재화한 사람들이 수동적 자살생각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수동적 자살생각은 절망감을 통해 적극적인 자살생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대인관계-심리이론을 적용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조사한 조민호(2010)의 연구에서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은 절망감과 관련이 높았으며, 절망감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의 경로를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1, 2, 3 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 편증을 줄이고 고른 분포의 표본을 얻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8개 구에서 한 학교씩 임의 표집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비율이 3.9 대 1 정도였으므로 그 비율에 맞추어 협조가 가능한 일반계고 6개 학교와 전문계고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별로는 1,2,3학년 전체 학급 중에서 학년별로 1학급씩 3개 학급을 임의 표집하여 총 24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782부였으나, 설문지 중에 응답 누락이 많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였고, 데이터 점검과정을 통해 이상치를 나타낸 7부를 제외한 후 총 76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338명(50.5%), 여학생이 380명(49.5%)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 587명(76.4%), 전문계고 학생이 181명(23.6%)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295명(38.4%), 2학년이 231명(30.1%), 3학년이 242명(31.5%)이었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청소년의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개념정의 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Reynolds(1988)이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7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최고 6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0점에서부터 180점까지 계산된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살생각이 빈번함을 의미한다. 신민섭(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979로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학대: 본 연구에서 부모학대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은 Straus(1980)의 Conflict Tactics Scale(CTS)척도를 김재엽 외(2009)가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총기사용 등의 문항을 제외한 8가지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TS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서 폭력 또는 학대를 측정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CTS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없다), 2점(1년에 한 두번), 3점(주1회 이상), 4점(거의 매일)로 구성되었다. 김재엽 외(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6이었고,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884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 의해서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또래괴롭힘으로 정의하였다(Olweus, 1994). 청소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Crick and Grotpeter(1996)의 Social Expreince Questionnaire(SEQ)를 수정, 변안한 임지영(1998)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5문항, 명백한 괴롭힘을 측정하는 5문항, 친사회적 행동소외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친사회적 소외는 또래집단 내에서 직접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이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약간 무시당하는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정의인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상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척도에서 명백한 괴롭힘은 직접적으로 신체적·언어적 방법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때리기, 차기, 밀기, 욕하기, 별명 부르기, 말로 위협하기 등이 포함된다. 관계적 괴롭힘은 고의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867이었으며, 관계상 괴롭힘은 .850 명백한 괴롭힘은 .881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내재화: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내재화는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그 지지체계 내에서 가지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으로 정의하였다(Joiner, 2005). 대인관계 내재화는 대인관계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내재화한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심리 이론에서 자살소망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Joiner(2005)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대인관계 욕구(interpersonal needs)’라고 개념화하였는데, ‘대인관계 욕구’를 직역하여 그대로 사용할 경우,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통증과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험을 강조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연구자가 ‘대인관계 내재화’로 재정의하여 사용하였다.

Joiner(2005)의 대인관계-심리이론을 근거로 하여 Joiner, Van Orden, Witte and Rudd(2009)에 의해 위험사정평가도구로 개발된 대인관계내재화 질문지(INQ)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총 25개의 문항이며, 짐이되는 느낌 15문항,

소속감 결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자는 조민호의 연구(2010)에서 번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표시한 후 적절한 단어를 제안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내재화 전체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절망감: 본 연구에서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망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Kovacs and Weissman(1974)이 개발한 Beck Hopelessness Scale(BHS)를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1990)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HS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 20문항 중 1, 3, 5, 6, 8, 10, 13, 15, 19문항은 역채점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절망감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부모형태와 주관적인 경제적 생활수준, 학업성적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7.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청소년 자살관련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측치와 이상치 점검을 하였고, 구조방정식의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설계된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에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 내의 변수간 경로가 유의한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고, 다중상관자승치를 통해 변수의 설명력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변수의 인과적 구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 경로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4. 결과분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80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VIF가 모두 3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변인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보면, 부모학대 10.23(SD=3.16), 또래괴롭힘 12.32(SD=3.88), 대인관계내재화 71.27(SD=23.47), 절망감 4.14(SD=4.46), 자살생각 20.41(29.63)이었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변수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대인관계내재화	절망감	자살생각
부모학대	1	.179**	.206**	.207**	.358**
또래괴롭힘		1	.414**	.223**	.258**
대인관계내재화			1	.566**	.496**
절망감				1	.409**
자살생각					1

** p<.01, * p<.05, n=768

2) 연구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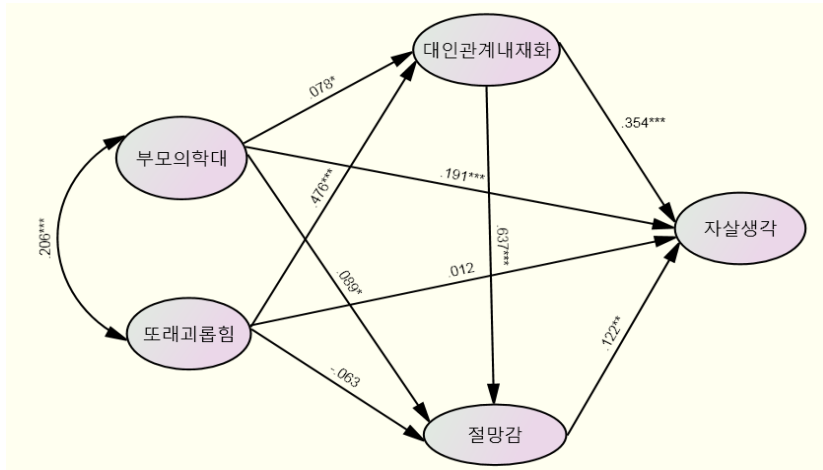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대인관계내재화, 절망감, 자살생각을 포함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8.880$ (df=44), p=.000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하였으며, TLI=.980, CFI=.987, RMSEA=.05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살펴보고자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부모형태, 생활수준과 학업성적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chi^2=315.493$, TLI=.950, CFI=.967, RMSEA=.058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내생변수와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상관지수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대인관계내재화에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변인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34.7%, 청소년의 절망감에 대한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대인관계내재화가 설명하는 총변량은 41.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대인관계내재화, 절망감 변인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51.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설명하도록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chi^2=315.493$, TLI=.950, CFI=.967, RMSEA=.058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결과와 추정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내재화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력은 $\beta=.078$ 로 유의미하였으며, 대인관계내재화에 대한 또래괴롭힘의 영향력은 $\beta=.478$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대와 또래괴롭힘을 겪는 대상자들은 모두 대인관계내재화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대보다 또래괴롭힘을 겪을 때 청소년들은 훨씬 더 관계를 왜곡되게 지각하는 대인관계내재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절망감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력은 $\beta=.089$ 로 유의미하였지만, 절망감에 대한 또래괴롭힘의 영향력은 $\beta=-.063$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관계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학대를 당할 때 절망감을 경험하지만, 또래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대인관계내재화의 절망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beta=.637$ 로 나타나 대인관계내재화는 절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의 학대는 $\beta=.19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생각에 대한 또래괴롭힘은 $\beta=.012$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인관계내재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beta=.354$ 로 유의미하였고,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beta=.122$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을 제외한 부모학대와 절망감, 대인관계내재화 모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이 밝혀졌고, 특히 대인관계내재화는 다른 변인보다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상관관계는 $\beta=.206$ 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 안에서 의 학대와 또래관계에서 또래괴롭힘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효과분해

본 연구모형에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는 분해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부모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해하면, 부모학대가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beta = .028$ 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부모학대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beta = .011$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obel검증¹⁾에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며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부모학대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Z값은 1.9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학대가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beta = .006$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대가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고,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의 학대가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가 매개효과를 가질지라도 부모학대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의 매개모형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해하면, 또래괴롭힘은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 = .169$ 로 유의미하였다. 또래괴롭힘이 절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은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beta = .036$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왜곡되게 지각하게 되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절망하면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또래괴롭힘의 매개모형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완전매개효과란 매개변인들이 개입되었을 경우, 또래괴롭힘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내재화는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beta = .078$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보다 대인관계내재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인관계내재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Sobel 검증: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X \rightarrow M \rightarrow Y$ 일 때, $a = X \rightarrow M$ 의 비표준화계수, $b = M \rightarrow Y$ 의 비표준화계수, $s_a = a$ 의 표준오차, $s_b = b$ 의 표준오차)

〈표 2〉 연구모형의 변수 효과분해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분석		인과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학대	→ 자살생각	.191**	.045**	.236**
부모학대 → 대인관계내재화	→ 자살생각		.028*	
부모학대	→ 절망감 → 자살생각		.011	
부모학대 → 대인관계내재화	→ 절망감 → 자살생각		.006	
또래괴롭힘	→ 자살생각	.012	.197**	.211**
또래괴롭힘 → 대인관계내재화	→ 자살생각		.169**	
또래괴롭힘	→ 절망감 → 자살생각		-.008	
또래괴롭힘 → 대인관계내재화	→ 절망감 → 자살생각		.036**	
대인관계내재화	→ 자살생각	.354**	.078*	.432**
대인관계내재화	→ 절망감 → 자살생각		.078*	

*** p<.001, ** p<.01, * p<.05 추정치: 표준화계수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청소년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행연구와의 관련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부모-자녀관계인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박경, 2005; Perkin and Jones, 2004)와 일치한다. 학대가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친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가정 내 위기에 의해 발생하므로(안동현, 2000; Emery and Laumann-Billing, 1998), 청소년들은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정서적 장애를 나타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규명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무시, 방치, 차별당하는 학대받는 경우, 그러한 학대경험이 현재의 문제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계획하거나 고려해보는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ldney et al., 1991). 따라서,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대경험 유무와 지속기간, 학대유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부각시킨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인관계내재화를 통해 청소년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학대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절망감보다는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가족 안에서 '쓸데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지각하는 대인관계내재화를 통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학대경험은 정서

인식이나 인지해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상대의 정서나 의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대인관계내재화라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자살생각의 발생에 있어 대인관계내재화가 갖는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의미는 치료적 개입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학대적 환경이라는 요인은 개인적인 힘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적인 것이며, 특히 학대경험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경험적 사건인데 비해서(김은경·이정숙, 2008), 현재 느끼는 대인관계내재화 정도는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인지-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학대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정복지 차원의 개입과 더불어서 대인관계내재화를 낮추는 심리치료적 개입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예상과 달리 부모학대는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절망감이 초기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부정적 가족기능과 자살행동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Lai Kwok, Sheck, 2010b; Meneese, et al., 1992)와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나 절망감, 아동기의 역경을 통제할지라도 학대는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예측요인이었으며(Martin, Bergena, Rischardson, and Alliso, 2004), 초기 청소년의 신체학대는 자살생각에 확고하며 매개되지 않는 독립변인이었다는 Salzinger, Rosario et al(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학대경험은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기에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대경험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모학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험한 변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학대의 경험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반복적 실패로 인한 누적효과에 의한 것이므로(Doll and Lyon, 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는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Wan and Leung, 2010). 따라서,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학대경험 여부를 사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역으로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결과(Klomek, Marrocco, et al., 2008; Smith, 2010)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과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뚜렷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지만 연구모형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또래괴롭힘이 모형 내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변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심리적 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은 대인관계내재화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매개효과인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대인관계내재화에 대한 또래괴롭힘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괴롭힘은 부모학대보다 대인관계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명백한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의 주인공이 될 때, 청소년들은 관계에서 스스로를 철수시키며 소외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그들과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된다고 지각하고, 또래관계에서 격리되어서 외롭다고 지각하여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Mazza and Eggert, 2001)와 일치한다. Catterson and Hunter(2010)은 또래괴롭힘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해석을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또래괴롭힘의 경험이 자살생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이 관계에서 소외되었다고 지각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대인관계내재화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내재화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변환시켜 보호요인의 역할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또래괴롭힘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부여해준다면 또래괴롭힘과 학교폭력 등의 피해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Ramey, Busseri et al.(2010)은 다양한 관여활동(engagement activity)을 통해 자살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자살시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살시도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본 Bostik and Everall(2007)에 따르면, 자살시도청소년들은 의미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으로 자기노출을 시도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욕구를 점검함으로써, 이들이 새롭게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 스스로가 가치 있고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예상과 달리 또래괴롭힘 경험은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을 겪는 청소년들이 절망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 일치하지 않는다(Coggan, Bennett et al., 2003; Swearer and Doll, 2001). 이에 대하여 Cole(1989)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특별하고 운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절망감이 자살생각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 때문에 통계적으로 절망의 예연력이 감소된다는 Linehan et al(1983)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래관계에서 따돌림이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교한 Bonanno and Hymel(2010)의 연구에서도 절망감은 또래괴롭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지 못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을 겪는 청소년들은 괴롭힘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절망하지 않을지라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짐이 되는 존재라고 내재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과 자살생각에서 대인관계내재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위험을 사정하기위해서 거대한 수의 위험요인을 측정하기보다는 대인관계내재화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의 인지-정서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대인관계내재화는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질수록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결과는 Joiner의 대인관계내재화 개념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심리이론(Joiner, 2005)에서는 대인관계내재화를 죽음의 욕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대인관계내재화의 영향력은 부모의 학대, 또래괴롭힘, 절망감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자살생각에 대인관계내재화가 다른 변인보다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Van Orden et al., 2008; Joiner, Van Orden et al., 2009)를 지지하였다.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내재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근 대인관계에서의 상실여부와 사회적 지지자원을 점검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타인의 도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Stellrecht, Gorden, Van Orden et al., 2006).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관계를 점검하며, 그들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청소년들은 살아있을 중요한 이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절망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절망감이 자살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Petti and Joiner, 2006; Ellis and Rutherford, 2008). 일부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탁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지만(김현순, 2008),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절망감은 여전히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총효과를 분석했을 때 학대경험, 또래괴롭힘,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 중에서 절망감은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오히려, 절망감은 대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절망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잠재적 자살에 중요한 지표로 설명되었지만(Dori and Overholser, 199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외부 스트레스환경에 대하여 즉시 절망감을 경험한다기보다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대인관계내재화를 통하여 절망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주변체계로부터 소외되거나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지각할 때 청소년들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자살을 유발하거나 방지하는 요인으로서 인지적 기제를 강조해 온 이론적 접근(Beck, Steer, et al., 1985)과 일치하며, 인지적 요인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비록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감의 영향력이 높지 않았지만, 자살관련자들은 인지적 기능이 위축되어 있어서 현실에서 도피적인 탈출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절망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자살위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척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자살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대인관계

내재화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관계차원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경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개입의 초점이 되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위험을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경로를 확인하였는데, 자살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자살시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대인관계내재화를 개념화한 Joiner(2005)는 자살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살생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자살잠재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구성하였으므로 자살시도에 이르는 과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 자살잠재력은 스스로를 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대와 같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충동적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완결된 자살이 되기 위해서는 길고 긴 예비단계가 존재한다고 Joiner(2005)는 제안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자살잠재력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충동성과 자살잠재력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생각에서 시도에 이르는 과정을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확인한다면 자살의 경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따라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양적연구로서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진 청소년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경로에 미치는 대인관계내재화요인이 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학대나 또래 괴롭힘으로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한다면 이들이 학대나 또래 괴롭힘으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자살생각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밀도있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살아온 성장과정과 초기기억 등은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거나 생을 끝내기위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살의 경로나 신호까지 민감하게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경험을 극복하고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에서 중간 이상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78%에 이르며, 부모와의 동거여부도 80%의 학생들이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인천의 전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표집하였으나 수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한 표본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살이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Mazza and Reynolds, 2008). 앞으로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이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살생각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전략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인관계내재화 변인은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개의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대인관계 내재화 변인에 속한 하위척도로 보고, 단일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자살생각과의 인과관계를 다루었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분리하여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살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함께 개입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성별과 경제적 생활수준, 학업성적 등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생활수준 등의 요인을 통제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여부에 따라 다집단분석과 같은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자살에 대한 모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09. 『위기청소년 실태 설문조사』.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1):127-152.
- 김원중. 2004. “왕따: 의미, 실태, 원인에 관한 종합적 고찰.” 『상담학연구』, 5(2): 451-472.
- 김은경·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 김재엽·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재엽·정윤경·이진석. 2009. “가정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현순. 2008.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노인과 청소년간의 차이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성. 2008.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191-217.
- 김희수·이재도·홍성훈. 2006. “학교폭력가해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폭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24: 79-98.
- 박경. 2005. “여고생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여성건강』, 18(1): 1-22.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신민섭. 1992. “자살기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안동현. 2000. “신규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보고서, 173-222.
- 이상준.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8(2): 331-353.
- 임지영. 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호, 2010.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자살예방체제 구축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4.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준영,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관련 태도." 『사회연구』, 14(2): 223-238.
- 최지영, 2009. "괴롭힘 상황에서의 아동의 가해 및 피해경험 측정방법 비교를 통한 심리적 특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21(3): 339-358.
- 통계청, 2010.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표." 서울:통계청
- Baumeister, R. F., and M. R. Leary,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497-529.
- Beck, A. T., R. A. Steer, M. Kovacs, and B. Garrison, 1985.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 A 10-year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al ide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5):559-563.
- Beck, A. T., M. Kovacs, and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renson, A. B., C. M. Wiemann, and S. McComb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5(11): 1238-1242.
- Bonanno, R. A., and D. Hymel, 2010. "Beyond Hurt Feelings. Investigating Why Some Victims of Bullying Are at Greater Risk for Suicidal Ide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6(3): 420-440.
- Borges, G., C. Behjet, et al., 2008.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Mexican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Journal of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1): 41-52.
- Bostik, K. E., and R. D. Everall,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5(1):79-96.
- Brent, D. A., D. J. Kolko, et al., 1990. "Suicidality in affectively disordered adolescent in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586 - 593.
- Campell, M. L., and A. P. Morrison,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psychotic-like experiences and appraisal in 14-16 years old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5(7): 1579-1591.
- Catterson, J., and S. C. Hunter, 2010. "Cognitive mediators of th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on lonelines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403-416.
- Coggan, C., S. Bennett, et al., 2003.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and mental health status in New Zeal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5(1): 16-22.
- Cohen, Y., A. Spirito, and L. K. Brown, 1996.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R. J. DiClemente, W. B. Hausen, L. E. Pont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risk behavior*. (193-224). Plenum Press.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Crick, N. R., and J. K. Grotpeter,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367-380.
- Dick, G., 2005. "Witnessing marital violence as children: men's perceptions of their fathers." *Journal of*

- Social Service Research*, 32(2): 1-25.
- Digdon, N., and I. Gotlib, 1985.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childhood depression." *Developmental Review*, 5: 162 - 199
- Doll, B., and M. Lyon, 1998. "Risk and resilienc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schoo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Review*, 27: 348-363.
- Dori, G. A., and J. C. Overholser, 1999. "Depression, hopeless, and self-esteem: Accounting for suicidality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9: 309-318.
- Ellis, T. E., and B. Rutherford, 2008. "Cognition and Suicide: Tow Decades of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1): 47-68.
- Emery, R. E., and L. Laumann-Billing, 1998. "An overview of the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for abusive family relationship: Toward differentiating maltreatment and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53(2): 121-135.
- Evans, E., K. Hawton, and K. Rodham, 2005. "Suicidal phenomena and abuse in adolescents: A review of epidemiological studies." *Child Abuse & Neglect*, 29: 45-48.
- Feldman, S. S., and G. R. Eliot, 1990.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ney, R. D., S. Smith, A. H. Winefield, et al., 1991. "Suicidal Ideation: its enduring nature and associated morbidit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3: 115-20.
- Goldston, D., B. S. Daniel, B. Rebousin, et al., 2001. "Cognitive risk factors and suicide attempts among formerly hospitalized adolescents: A prospective naturalistic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91-99.
- Graham, D., and J. Juvonen, 2002. "Ethnicity, peer harassment, and adjustment in middle school: An exploratory study." *Early adolescence*, 22: 173-199.
- Grilo, C. M., C. A. Sanislow, et al., 1999. "Correlates of suicide risk in adolescent inpatient impaatients who repor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Comprehensive Psychiatry*, 40(6): 422-428.
- Hanish, I. D., and N. G. Guerra, 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69-89.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E., J. W. Petti, J. W., R. L. Walker, et al., 2002.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ality: two studies on the suicide notes of the those attempting and those completing suicid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5): 531-545.
- Joiner, T. E., N. J. Sachs-Ericsson, L. R. Wingate, J. S. Brown, et al., 2007.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lifetime number of suicide attempts: a persistent and theoretically important relationship."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5: 539-547.
- Joiner, T. E., K. A. Van Orden, T. K. Witte, and M. D., Rudd, 2009.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Guidance for work with suicidal cli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oiner, T. E., K. A. Van Orden, T. K. Witte, E. A. Selby, J. D. et al.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ow samples of young

-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634-646.
- Kerr, D. C. R., L. E. Owen, K. C. Pears, and D. M. Capaldi, 2008. "Suicidal ideation and its recurrence in boys and men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an event history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3): 625 - 636.
- Kerr, D. C. R., L. J. Preuss, and C. A. King, 2006. "Suicid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peers: gender-specific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 103-114.
- Kessler, R. C., G. Borges, and E. E. Walters,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17-626.
- Klonek, A. B., F. Marrocco, M. Kleinman, et al.,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 Threat Behavior*. 38(2): 166-180.
- Lai Kwok, S. Y. C., and D. T. L. Shek, 2010a. "Hopelessn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0(3): 224-233.
- Lai Kwok, S. Y. C., and D. T. L. Shek, 2010b. "Personal and Family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 407-419.
- Lewinsohn, P. M., P. Rohde, and J. R. Seeley, 199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3: 25-46.
- Linehan, M. M., J. L. Goodstein, S. J. Nielsen, and J. A. Chiles,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276-286.
- Maris, R. W., A. Berman, and M. M. Silverman, (Eds)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Martin, G., H. A. Bergena, A. S. Richardson, L. Roger, and S. Allison, 2004. "Sexual abuse and suicidality: Gender differences in a large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5): 649-654.
- Mazza, J. J., and L. L. Eggert, 2001. "Activity involvement among suicidal and nonsuicidal high-risk and typical adolescents."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1): 265-281.
- Mazza, J. J., and W. M. Reynolds, 2008. "School-wide approaches to prevention of and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s." In B. Doll and J. A. Cummings (Eds.), *Transforming school mental health services*, 213-241. Thousand Oaks, CA: Corwin.
- Meneese, W. B., B. A. Yutzenka, and P. Vitale, 1992. "An analysi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Current Psychology: Research and Review*. 11(1): 51-58.
- Motto, L. A., and A. Bostrom, 1990.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ostcrisis suicide prevention." *Psychiatric Services*. 52: 828-833.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ble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17-1190.
- Parker, J. G., and S. R. Ashe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kins, D. F., and K. R. Jones, 2004. "Risk behavior and resilience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5): 547-563.
- Peter, T., L. W. Roberts, and R. Buzdugan, 2008. "Suicidal ideation among Canadian youth: A multivariate Analysi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2: 263-275.
- Pettit, J. W., and T. E. Joiner, 2006. *Chronic depression: Interpersonal sources, therapeutic solu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feffer, C. R. 1989. Family characteristics and support systems as risk factors for youth suicidal behavior. *Report of the Secretary's Task Force on Youth Suicide*, 2:71-79.
- Ramey, H., M. A. Busseri, N. Khanna, and L. Rose-Krasnor, 2010. "Youth engagement and suicide risk: Testing a mediated model in a Canadian community sample." *Journal of Youth Adolescent*, 39: 243-258.
- Reinherz, H. Z., J. L. Tanner, S. R. Berger, W. R. Beardslee, and G. M. Fitzmaurice,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 1226-1232.
- Reynolds, W. M., 199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theran-Borus, M. J., P. D. Trautman, S. C. Dopkins, and P. E. Shrout, 1990. "Cognitive style and pleasant activities among female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554-561.
- Sabbath, J. C., 1969. "The suicidal adolescent: The expendable chil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8: 272-285.
- Salzinger, S., M. Rosario, S. R. Feldman, and D. S. Ng-Mak, 2007.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ssociations with preadolescent physical abuse and selec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7): 859-866.
- Shneidman, E. S., 1996. *The suicide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P. K., 2010. "Victimization in Different Contexts: Comments on the Special Issue." *Merrill-Palmer Quarterly*, 56(3): 441-454.
- Stellrecht, N., K. H. Gorden, K. A. Van Orden, T. K. Witte, et al(2006). "Clinical applica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 62(2): 211-222.
- Stewart, S. M., B. D. Kennard, P. W. H. Lee, T. Mayer, T., C. Hughes, and G. Emslie, 2005.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two cultures." *Journal of Child and Psychiatry*, 46(4): 364-372.
- Straus, M. A., 1980. "Measuring interaction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75-88.
- Swearer, S. M., and B. Doll, 2001. "Bullying in schools: An ecological framework." *Journal of Emotional Abuse*, 2: 7-23.
- Taft, C. T., J. A. Schumm, J. Panuzio, and S. P. Proctor, 2008. "An examination of family adjustment among operation desert storm vetera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4): 648-656.

- Trout, D. L., 1980. "The role of social isolation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0: 10-23.
- Tse, W. L. and C. Bagley, 2002. *Suicidal behavior, bereavement and death educ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London: Ashagate Publishing Company.
- Van Orden, K. A., M. Lynam, D. Hollar, and T. E. Joiner, 2006. "Perceived burdensomeness as an indicator of suicidal sympto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457-467.
- Van Orden, K. A., T. K. Witte, L. C. Cukrowicz, T. E. Joiner et al.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an Orden, K. A., T. K. Witte, K. H. Gordon, T. W. Bender, and T. E. Joiner,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Wan, G. W. Y., and P. W. L. Leng, 2010. "Factors accounting for youth suicide attempt in Hong Kong: A model building." *Journal of Adolescence*, 33: 575-582.
- Woznica, J. G., and J. R. Shapiro, 1990. "An analysi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The expendable chil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5: 789-796.
- Yip, S. F., K. W. Fu, C. T. Yang, Y. T. Ip, L. W. Chan, Y. H. Chen, Y. W. Lee, and K. Hawton, 2006. The effects of a celebrity suicide on suicide rates in Hong Kong.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245-252.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Pathway of Interpersonal Needs and Hopelessness-

Hong, Na-Mi

(Incheon Youth Counseling Center)

This paper designed a mediating pathways model on how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lead to the development of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s of interpersonal needs and a hopelessness. The development is sure to help reduc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in turn, seek for distinct mediating methods to help teens with suicidal ideas.

To validate the suggested model, this paper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to 768 students in their 10th, 11th and 12th grades of high schools in Incheon, and then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efore confirming the research hypothesis by adopting the tools of SPSS 17.0 and AMOS 18.0.

The result clearly demonstrates that parental abus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developing suicidal ideation. Peer victimization, however, had no direct bearing on suicide ideation, only indirectly affecting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of interpersonal needs. In addition, peer victimization had indirec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a sequential intervention of variables from interpersonal needs to a hopelessnes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research ha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paper analyzed the mediating pathways of youth suicidal ideation resulting from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The result could possibly help find preventive measures and effective mediating approaches to save the lives of young people at risk of committing suicide. Secondly, this study proved that the interpersonal needs, a relatively new concept hardly introduced in previous studies, is a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 for suicide ideation, serving as an intervening variable of developing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people who have suffered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parental abuse, peer victimization, interpersonal needs, hopelessness

[논문 접수일 : 11. 09. 30, 심사일 : 11. 10. 18, 게재 확정일 : 11. 11. 15]